온라인·가정간편식으로 수산업 위기 넘자

완도군 코로나19 수산업 발전 간담회
해외시장 개척 통해 소비 촉진도

완도군은 신우철 군수 주재로 지난 12일 코로나19 수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산업 위기 돌파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수산업의 위기 돌파 전략을 마련했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신우철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복·광어·김·다시마 등 수산업계 대표들과 완도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대책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상품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가정간편식(HMR) 제품과 밀키트(Meal Kit·식재료와 양념 등을 세트로 제공하는 제품) 상품, 콜드체인(Cold Chain·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저온을 유지해 신선도를 높이는 방식) 신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완도군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완도 수산업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시마 재고량 증가, 광어 가격 급락, 전복 소비 둔화로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전복 양식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대구·경북지역 등에 전복 보내기 운동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수출이 둔화했지만 현재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완도군은 설명했다.

전복의 경우 지난 3~4월 수출이 주춤했으나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등 새로운 시장의 판로가 늘고 있다.

광어는 4월까지 가격이 일시 하락했으나 5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대비 42%가 올랐다. 지난달 기준 광어가격이 kg당 1만5000원을 유지했다.

완도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명절 선물 지역 상가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수산물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사례 등에 힘썼다. 추석 명절에는 완도 전복이 조기에 동나고, 광어 역시 출하량이 부족해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어·전복·유통업계 대표들은 설 명절에 대비해 생산자와 유통자 간에 협력해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우철 군수는 "수산물 단순 생산에서 가공을 통한 상품화 확장과 국내 시장 소비는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영산강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 18억 확보

남악신도시 주민들 악취 불편 호소

무안군이 국비 18억원을 확보해 영산강 수해 쓰레기를 수거, 소각 처리한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영산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산강 하류 일대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떠밀려 온 쓰레기가 6000여t에 달하면서 인접한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당시 무안군은 태풍 바비 북상 전 쓰레기 1200여t을 우선 소각처리 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영산강 인근에 적치해 놓은 쓰레기 4800여t에 대한 수집·소각처리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무안군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건의해 환경부로부터 18억원을 확보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수해쓰레기는 생활 폐기물과 수초 등이 뒤섞여 악취가 심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바다와 강으로 흘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를 완료해 영산강을 깨끗하게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내 쓰레기 소각장 3곳의 하루 소각능력은 180t으로 이번에 수거된 쓰레기는 내년 상반기에 소각처리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군의회 3개월만에 정상화…한빛원전특위 구성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갈등을 겪어왔던 영광군의회가 3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는 지난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빛원전특위는 위원장에 김병원 의원, 간사에 임영민 의원이 선임됐다.

한빛원전특위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의 상시 점검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활동을 펼쳐나간다.

김병원 한빛원전특위 위원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및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기자 노트

목포시장은 '불통'의 아이콘?

문 병 선
제2사회부
서부취재본부장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통'이다. 소통은 다른 것들과의 만남이다. 언제 소통이 잘 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소통이 잘된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한 것도 서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까닭에 소통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소 낯설지만, 유네스코는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다. 백성이 말과 글을 쉽게 익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고 세계 문맹퇴치 노력에 동참하고자 유네스코가 지난 1989년 제정했다. 올해는 네팔의 '네팔 노령기구'와 영국의 '세계연합학교'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성을 생각하고 글을 통해 소통을 원했던 세종대왕의 '측은지심'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정자 정치 덕목에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다.

최근 김종식 목포시장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선출직 공직자 대다수가 유권자에게 입맛에 맞는 공약과 기대감으로 환심을 사려한다. 김 시장 역시 후보시절 '애민'을 밑바탕으로 한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다잡은 바 있다. 그랬던 그가 파열음으로 생채기 투성이다. 목포시의회와의 마찰이 그렇고, 시민과의 불통이 그러하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시의회와 '민간투자 방식이 맞다'는 시장의 생각이 대립하면서 목포시 쓰레기 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급한 시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시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들은 문제 원인을 시와 의회 간 소통 부재로 보고 있다.

또, 목포시가 추진하는 '목포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 주차장 개설공사'로 광장 주변 달맞이공원이 일부 훼손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시장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김 시장은 "집회를 열지 않으면 만나주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시민을 대하는 시장의 자세가 불통을 넘어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는 '오만 불손'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소통의 수단은 말이다. 별다른 생각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혹자는 그래서 말을 칼, 비수에 비유한다.

사려 깊지 못한 시장의 말 한마디가 시민들에게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소통이 막힌 관계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소통은 자기보다 상대방을,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것 보다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공전6조에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보수 이야기가 나온다.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총론적 관점에서 꼼꼼히 챙겨보길 주문해 본다.

/moon@kwangju.co.kr

내년 해조류박람회 성공 기원 근무복 1257벌 기부

양광용 재경완도군향우회장
3회 연속 후원

양광용(인터그룹 대표) 재경완도군향우회장이 지난 12일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박람회 근무복 1257벌(5000만원 상당)을 제작, 완도군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그동안 남다른 애향심으로 고향인 완도의 노인요양시설,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등에 운동복을 기증했다.

사회공동기금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양 회장은 "2014년과 2017년 박람회에 이어 내년 해조류박람회도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대성공을 거둬 완도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북취재본부장 ejhung@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 매 물 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 매 물 건

공 장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토지 : 8503.4㎡(2572.3평) 건물 : 4234.9㎡(1281.1평)
감정가 : 4,290,595,500원 최저가 : 1,922,187,000원(45%) 유찰3회

공 장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2회

공 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859,822,000원(56%) 유찰2회

공 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605
토지 : 2058.5㎡(622.7평) 건물 : 1592.8㎡(481.8평)
감정가 : 1,730,846,220원 최저가 : 1,211,592,000원(70%) 유찰1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